

【 2015.07.30(목) 강원도민일보 】

박태권·염돈설씨 도사회공헌장 수상자 선정

제4회 강원도사회공헌장 수상자로 박태권(49·동해)씨, 양구군여성단체협의회(회장 이순녀), 염돈설(55·평창)씨가 선정됐다.

도는 29일 오전 도청 본관 소회의실에서 도사회공헌장 심사위원회(위원장 박주선)를 열고 심사위원들의 우선순위 투표를 통해 희망나눔, 사랑나눔, 행복나눔 부문 수상자를 선정했다.

희망나눔 부문 수상자로 선정된 박태권 주암횃집 대표는 향토인재 육성 동해시민장학회에 13회에 걸쳐 1700만원을 지원하는 등 기부와 후원에 앞장서고 있으며 사랑나눔 부문 수상자인 양구군여성단체협의회는 장애인 반찬 배달, 제빵봉사, 한부모 가정



박태권씨

염돈설씨

김장 지원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행복나눔 부문을 수상하는 염돈설 토진종합건설 대표는 지난 2001년부터 현재까지 100회에 걸쳐 1억5200만원을 기부·후원했으며 수해복구 때 중장비를 무상으로 대여하는 등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했다. 시상식은 오는 9월 4일 제14회 강원도사회복지대회 기념식에서 진행된다. 오세현

【 2015.07.30(목) 건설경제 】

기재부, 입찰제한 제척기간 도입 '국가계약법 개정' 연내 완료

기획재정부가 입찰참가제한에 5년의 제척기간을 도입하는 내용의 국가계약법 개정을 연말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규제개혁 과제 34개의 이행 성과를 점검한 결과, 이달 말까지 25개가 완료됐고 3건은 국회 심의 중이며 나머지 6개는 추진 중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현재 추진 중인 과제 중에는 입찰제한 같은 처벌적 제재 대신 과징금 등의 경제적 제재 중심으로 전환하는 입찰담합 제재 완화 과제가 포함됐다.

기재부는 연말까지 제척기간을 설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아 국가계약법 개정을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재부는 종합심사낙찰제에 적정 관급 자재 관리비율을 반영하고 일부 발주기관의 불공정 계약 관행을 지속적으

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입찰담합 제재 완화와 함께 △호텔 리츠산업 육성 △해양경관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 △관광특구 규제개선 등도 아직 추진 중인 과제로 분류됐다.

앞서 이행이 완료된 과제로는 긴급입찰 사유 법령화가 꼽혔다.

기재부는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돼 일정 조정을 위한 불가피한 경우, 긴급한 행사·재해예방·복구 등을 위한 불가피한 경우 등으로 긴급입찰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이외에도 지난 3월 말부터 자기자본이 1조원 이상인 대형증권사가 은행의 고유 업무였던 외화대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증권사의 외화차입 요건도 완화했다.

박경남기자